

네트워크환경에서 내용관리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radigm Shift to Content Management in the Networked Environment

남 태 우(Tae-Woo Nam) *
문 경 화(Kyung-Hwa Moon) **

목 차

- | | |
|------------------------------------|-------------------------------|
| 1. 서 론 | 2. 2. 4 인쇄매체와 전자매체의
최적의 결합 |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장서관리에서 내용관리로의 패러다
임 전환 |
| 1. 2 연구의 내용과 제한점 | 3. 1 이용자 중심의 장서관리 |
| 2. 장서구축이론의 변화 | 3. 2 내용관리로의 중재역할론 |
| 2. 1 용어의 변화와 그 문제점 | 3. 3 지식관리시스템으로서의 장서
관리전략 |
| 2. 2 매체변화와 장서개발이론 | 4. 결 론 |
| 2. 2. 1 적시성 대 적확성 | |
| 2. 2. 2 인쇄매체와 전자매체 | |
| 2. 2. 3 디지털자원과 전통적자료
의 장서관리 차이점 | |

초 록

본고에서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매체변화와 장서개발 이론의 향후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도서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보가 인쇄매체에서 전자매체 중심으로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장서개발전략이 물리적 대상이나, 배가, 보관등 형식 중심의 전통적인 장서관리 개념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매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인 '내용(content)'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도서관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패키지(package)'로서 간주되어 왔던 기존의 기능으로는 이제 다양한 정보욕구를 가지고 도서관에 접근하는 이용자 중심의 정보제공을 충족시켜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래의 장서개발은 기존의 장서관리(collection management)에서 매체가 담고 있는 내용중심의 내용관리(content management)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규명하였다.

ABSTRACTS

This study represents an attempt to forecast the increasingly complex and dynamic interplay between the transformation of media and collection management function in the networked environment. As the importance of electronic media rather than printed media is emphasized, there is a need to shift from the traditional collection management to content management for collection development strategy. In order to satisfy the needs of library users who have thirst for more various information, the traditional function of collection management has limitations. Therefore, we suggest that the future collection management must shift from the traditional collection management to content management.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접수일자 1999년 10월 22일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장서개발은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제공하는 도서관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장서개발이야말로 모든 도서관 업무의 첫단계가 되는 것이다. 디지털 도서관이나, 자료검색, 참고봉사등 이 모든 것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서의 성격을 결정하게 되는 장서개발이 도서관 업무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장서개발정책의 필요성은 훌륭한 장서구성을 위한 기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장서구성의 목적은 이용자에게 제공해 주기 위한 주제와 수준 및 범위 등에 대한 지침을 가짐으로서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도서관 이용자의 정보 요구 수준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이용자연구, 장서개발기준, 예산분배, 자료의 평가 및 선택, 출판, 장서평가 및 폐기, 수서업무, 자원공유에까지 그 내용이 매우 폭넓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전통적 장서개발 방향이 다양한 전자환경하에서 도서관의 정보관리라는 개념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장서개발이 장서관리로 변화하게 된 것은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쇄물의 비용증대라는 경제적인 요소들에 의한 것이다. 전통적인 인쇄매체에 대한 정보이용에서 전자적으로 컴퓨터 처리되는 네트워크 환경에 들어서면서 도서의 선정과 보관이라는 측면이외에 다양한 매체의 선정이나 전자자원의 축적, 새

로운 기술의 도입 및 시스템 개발,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공유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장서관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정보기술이 장서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컴퓨터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도서관의 장서관리 기능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안 문제임에 분명하다. 기존의 장서개발로는 전자정보 환경에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서관리 개념에 대한 연구는 시도될 가치가 있다 하겠다.

단순히 가공물의 관리자로서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다양한 자원에 대한 인식론적 차원에서 사서의 해석력을 강조한 본 연구에서는 내용관리에 초점을 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수많은 정보중 적합한 내용을 선택하고 판별할 수 있도록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지식창출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능동적인 활동이야말로 새로운 내용관리 필요성의 주안점이 된다. 단순히 정보의 소장여부 파악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해석하고 이용자 요구에 맞추어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인식론적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매체의 변화와 장서개발간의 향후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발전될 미래의 도서관은 가공물의 관리보다 지적내용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매체변화가 도서관 장서개발의 이론과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2 연구의 내용과 제한점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내용관리라는 용어는 정보자원의 전자화에 주요한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인쇄매체에서 전자매체로 이용자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장서관리에 대한 용어의 변화와 자원관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시대별 장서개발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음을 우선적으로 검토 분석한 후, 매체변화에 따라 장서개발 이론이 변화하게 된 것을 전자매체와 인쇄매체라는 이원시스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결국 도서관이 내용관리자로서의 중재역할을 가지고서, 매체나 형식위주에서 탈피한 내용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내용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은 이용자 요구가 매체나 형식 보다는 내용에 그 적합성을 매치 시킬 수 있는 인식학적 기반 하에 설명하고자 한 것으로서,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의 구축은 포함되지 않은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장서개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사서의 해석력과 중재역할론을 통해서 현 위상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관리는 전자매체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인쇄매체가 지속적으로 이용되리라는 전제하에 이에 대한 장서개발과 전자정보에 대한 장서관리가 서로 보완적으로 병용되면서, 이와 아울러서 내용관리가 필요한 도서관 정보자원에 대한 적용이 상호보완적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였다.

2. 장서구축이론의 변화

2.1 용어의 변화와 그 문제점

장서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용어들에 대해 사공 철 등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 ALA, Harrod's Librarian's Glossary, ELIS 등 대표적인 문헌정보학 관련 용어사전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들 용어집에서 장서개발 관련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으며, 더구나 내용관리(content management)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한곳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사공 철 등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 의하면 '도서수집(book collecting)'이라는 용어는 '책의 서지적인 면, 내용적인 면, 역사적인 면이나 희귀한 점 등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모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도서관장서(library collection)'는 '한 도서관이 그 이용자를 위해 수집, 소장한 모든 종류의 자료를 총칭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library holdings, 혹은 library resources라고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서개발(collection development)'에 대해서는 '도서관장서의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선택정책결정, 이용자의 요구파악, 이용조사, 장서평가, 자료의 선정, 자료분담계획, 장서관리 및 폐기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며, '장서관리(collection management)'는 '장서개발에 있어서 통계적 분석 및 비용 대 효과연구 등 특히 양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ALA Glossary에서 용어를 살펴보면,

library collection, collection development, collection management에 대해서 KLA와 거의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

Harrod's Librarians' glossary에 의하면 '도서선정(book selection)'이란 '도서관장서의 균형 잡힌 증가를 제공하기 위한 견해를 가지고서 어떤 도서관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도서들을 선정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장서개발(collection development)'에 대해서는 '단순히 즉각적인 요구에 대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도서관 서비스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장서를 구축하기 위한 장서수집 프로그램 계획의 과정으로서 그 개념은 장서의 심도와 질적인 면을 요구하고 직원 훈련 등을 통해서 장서의 개발을 향한 협력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장서관리(collection management)'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원하는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부차적 장서에 대해서는 도큐먼트 및 정보를 대안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장서개발 기본원칙에 입각한 도서관장서의 조직 및 유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ELIS에서는 각 단어별 정의는 나타나지 않고 collection development and evaluation in the electronic library라는 개념을 참고해 볼 수 있는 정도였다.

이렇게 대표적 용어사전을 통해서 살펴본 다양한 용어의 정의중 도서선정(book selection)과 장서개발(collection development)의 차이는 전자가 개개의 도서 각각을 대상으로 수집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반해, 후자는 각 도서의 가치를 기존장서와의 관

계에서 파악하고 다른 자료와의 연계속에서 이용가능성을 평가하고 개발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서개발(collection development)은 특별한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서관 장서를 구축하는 과정을 지칭했던 총체적 개념이었다. 장서개발에는 내부정책문제, 자료의 선정과 제적정책, 장서평가, 이용 및 이용자 연구 등이 포함되는데, 그 목적은 이용자 그룹의 교육적, 오락적, 그리고 정보요구에 가장 적합한 장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이후의 개념으로서 장서관리(collection management)는 개별적인 기관의 장서에서 보다 광범위한 도서관 전반으로, 그리고 장서구축에 대한 협의의 특수한 문제에서 전문적 실무와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범위로서 장서개발과 장서관리 사이의 미묘한 변화를 나타낸다. 광의의 개념에서 장서관리는 정보수집과정, 커뮤니케이션조정, 정책규정화, 평가 및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다. 장서관리에는 예산 및 자원분배; 자료선정, 규정 및 제적; 매체 및 형식의 선정; 축적서비스 및 시설; 보존, 유지, 제본; 장서점검; 조직 및 직원관리; 업무수행측정; 장서경영; 시스템개발 및 신기술; 자원공유 및 네트워킹 등이 포함되는데 즉, 장서개발은 장서관리라고 하는 보다 넓은 분야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상의 용어정의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서개발 이론의 발전과정에서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내용관리(content management)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함에 앞서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장서개발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검토하였으며, 용어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관

문헌을 통해 조사하였다. 즉, 1920년대 최초의 용어인 도서선정(Book Selection)으로부터 시작하여 도서관 도서선정(Library Book Selection), 장서구성(Building Library Collection)등이 사용되어 오다가 1970년 이후에 장서개발(Collection Development), 도서관장서(Library Collection), 그리고 장서관리(Collection Management), 수서관리(Acquisition Management), 정보자원관리(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등으로 변화되어 오는 과정을 문헌에 나타나는 순서에 의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서개발 관련문헌중에서 가장 최초로 사용된 용어는 1922년 도서선정(book selection)이다. Melvil Dewey가 Book Selections이라는 용어를 Library Journal에서 사용한 것이다. 이 용어가 1877년 듀이의 저서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1922년에는 Elva L. Bascom이 Book Selection이라는 단행본으로 ALA를 통해서 발표하여 이후 계속 사용되었다. 1952년에는 도서관 도서선정(Library Book Selection)이라는 용어가 S.R.Ranganathan에 의해서 사용되었다. 그는 1952년 Library Book Selection을 뉴델리의 인디아 도서관협회에 발표함으로써 최초의 용어인 도서선정이라는 용어 뒤를 이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1959년 도서관 장서구성(Building Library Collect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Carter, W. J.와 M. D. 그리고 Bonk and R. M. Magrill이 1959년에 Building Library collection을 발표하면서 나타났

(Metuchen, N. J., The Scarecrow Press, Inc., 1959.). 이후 1974년에 4판이 나오는 동안 활발히 사용되어 온 개념이다. 네 번째 용어로는 1979년 장서개발(Collection Development)이라는 용어이다. P. H. Mosher는 Collection Evaluation in Research Libraries: the Search for Qualities, Consistency and System in Collection Development라는 논문을 LRTS Vol.23, No.1에 1979년 겨울호에 발표하면서 장서개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1981년에는 도서관장서(Library Collection)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Gardner, Richard K.는 Library Collection: Their Origin, Selection and Development를 1981년 McGraw-Hill 출판사를 통해 발표하면서 도서관 장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982년에는 Slote, S. J.가 Weeding library Collections을 한정본으로 출간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장서개발의 뒤를 이어서 나타난 용어는 1983년의 장서관리(Collection Management)이다. Pankake, Marcia는 From Book Selection to Collection Management: Continuity and advance in an Unending Work라는 논문을 1983년 Advances in Librarianship 13호에 기고하였는데, 도서선정에서 장서관리로의 변화를 연구하면서 장서관리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이밖에 1984년에는 수서관리(Acquisition Management)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Magrill, Rose Mary 그리고 Doralyn J. Hickery는 Acquisitions Management and Col-

lection Development in Libraries라는 저서를 ALA에 1984년에 기고하여 수서관리와 장서관리를 연구하면서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정보자원관리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라는 용어는 최신의 용어중 장서관리와 병행하여 사용되어 왔는데 도서관 자료가 단순하게 텍스트위주의 개념에서 도서를 포함하여, 정기간행물, 팜플렛, 보고서, 필사본, 마이크로폼, 동영상, 비디오/오디오 테이프, 사운드레코딩 등 물리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사용된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1997년에는 내용관리(Content Management)라는 용어가 G. E. Gorman 등이 저술한 Collection Management for the 21st Century: A Handbook for librarians라는 저서에서 처음 나타났다. John M. Budd와 Bart M. Harloe는 제1장 Collection Development and Scholarly Communication in the 21st Century: From Collection Management to Content Management에서 내용관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살펴 본 바와 같이, 가장 오랜 개념인 도서관정은 하나의 행위로부터 장서구성이라는 결과로, 그리고 최근에는 행위로부터 결과에 이르는 장서개발 전과정 혹은 장서관리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각 용어들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용어들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기서 새로운 개념의 '내용관리 (content manag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까지 개별적 도서나, 매체의 선정에 초점을 두던 것에서 벗어나 도서와 매

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인 내용 그 자체를 인식론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서 미래의 장서개발 전략을 정의하고 이에 대해 매체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관련용어의 정의 및 문헌조사를 통하여 각 용어의 출현을 시대별로 분석해본 바와 같이 내용관리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최근의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도서관 정보이용환경의 변화라는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자정보의 이용과 전문검색의 제공이라는 디지털 환경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장서관리 개념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기존의 인쇄매체에 대한 '소장' 개념 중심의 장서개발과 더불어서, 전자매체에 의한 전자자원에 대한 '접근' 개념의 장서관리가 이제는 양 개념이 통합적으로 병용되어 상보성을 갖는 내용관리라는 개념으로 대두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정의한 내용관리라는 새로운 용어를 매체의 변화에 따라 장서개발이론이 변화하게 된 것을 살펴봄으로써 향후의 내용관리의 핵심요소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2 매체변화와 장서개발이론

장서관리에서 내용관리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개념은 도서관환경이 네트워크 환경으로 급변함에 따라서 요구된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인쇄자료 대 전자자료' 혹은 '이용자요구 대 기관적요구', '무료 대 유료', '소장 대 접근' 등 이분적인 패러다임 논의의 경향은 심화되고 있다. 이중 특히 '소장 대 접근'

이라는 문제는 네트워크화된 도서관 환경의 장서개발 업무수행에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는 요소이다. 단순히 '어떤 것 하나로만'이라는 식의 극단적 이분법적 논리는 문제의 본질을 단순화시킨다. 미래의 장서개발에서 '구입과 소장'이라는 기존의 방법만으로는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우선 수많은 정보가 각처에서 발생함에 따라서 어디에서 어떠한 정보가 발생했는지조차 인식하기 힘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정보의 발생을 파악하였다 해도 자료의 구입비의 급등에 비해 예산은 유지나 삭감되는 현실에서 새로운 자료들을 구입하여 소장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 분명하다. 더구나 네트워크 환경으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전자자원에 대한 이용자 요구는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장서개발 수행방법으로 더 이상 '소장' 패러다임에만 의지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안이 될 새로운 장서개발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2. 2. 1 적시성(just-in-time) 대 적황성(just-in-case)

그 동안 도서관 장서개발에서는 '소장' 중심의 자료구축이 일반적이였다. 그러나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전자자원의 요구와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장서의 물리적인 소장을 기반으로 하는 상황론적 장서개발(just-in-case)에서 이용자의 정보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 요구론적 장서개발(just-in-time)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적황성 및 적시성이론은 경영학이론에서

도입된 것으로 그 이론의 본질과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황에 맞는(just-in-case)'이라는 경영학 이론은 미국에서 대두된 것으로 생산성에 기반하고 있다. 즉 제조업자들이 불량품을 대체하거나 설비 불량을 예상하여 전체 생산라인을 따라 원재료와 설비에 대한 많은 여분의 재고를 저장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적시(just-in-time)'이라는 경영학 이론은 일본의 생산모형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적시생산 또는 무재고 생산이라고 불리는 이론이다. 적시라는 생각은 1950년대 도요다 자동차의 오노(Taiichi Ohno)가 미국 방문시 거대 슈퍼마켓의 진열대에 정확히 계속 쌓아두는 속도와 효율성에 대해서 '슈퍼마켓은 고객이 (1) 필요한 것을, (2) 필요로 하는 때에, (3) 필요한 양만큼 얻을 수 있는 곳이며, 이것이 우리의 적시라는 목표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1953년 이 시스템을 실제로 적용하게 된 것이다.

미국 자동차 공장 현장에서는 생산라인의 설비와 부품들이 정지되어 있었으며, 종업원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때를 지어 다니기만 하였다. 재고는 통로에 쌓여 있었고, 쓰레기통은 불량 부품과 함께 쌓여 있었다. 반면에, 일본의 자동차 공장 현장의 모습은 통로는 깨끗하였으며 작업장에 있는 모든 종업원들은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었다. 재고가 쌓여 있는 작업장은 없었다. 불량 자재가 발견되자마자, 종업원들은 즉시 딱지를 붙이고 교체를 위해 품질관리 센터로 보냈다. 일본의 경영에서 보았을 때 미국식의 공정은 손실이 많고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일본의 시스

템인 적시생산은 정확한 품질관리 기준과 잠재적인 문제가 생산 공정에서 중요한 고장을 일으키기 전에 찾아내기 위해 설계된 위기관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이러한 생산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각 회사의 결산수치에서 나타난다. 일본측의 설비시스템에서는 1년에 대당 4.8평방피트의 작업장에서 0.45%의 불량률로 자동차를 만드는데 16시간이 걸린다. 미국 측은 1.3%의 불량률로 8.15%평방피트에 거의 31시간이 걸린다는 결과가 두 이론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영학이론에서 나온 적시성과 적확성 이론은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장차 필요로 될 물리적인 자료를 소장하는 '상황론'과 요구가 있을 시에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 '요구론'이 장서개발에서 그 예이다. 접근(access)이란 영구적인 소장이 아니라 자료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오늘날 정의되는데, 도서관 상호대차, 상업문헌 전송서비스, 라이선스를 통한 CD-ROM의 이용권한 획득,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정보를 이용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전통적으로 이용된 형태와 새로운 개념의 접근성이 공존하는 것이다. 정보자원이 이제는 구입이나 소장이라기보다는 접근의 차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선정과 장서개발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더구나 전자정보가 중앙집중식이 아니고 분산식이기 때문에 소재위치(location)의 개념은 기본적인 변화를 수반하였다. 일부에서는 접근이라 하면 상호대차 서비스로 여겼고 도서관현장에서의 특별한 일종의 참고서비스로 간

주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접근이라는 것이 구입과 소장방식과는 달리 이용자 요구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는 특성 때문에 사전계획없이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접근을 장서개발 차원에서 보기 보다는 참고서비스의 관점에서 보아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접근에 대한 장서개발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소장의 대안으로서 '접근' 방법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표준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즉, 이용자가 접근을 통해서 해답을 얻기까지의 비용과 시간측정, 그리고 정보의 신뢰성 측정에 사용할 표준을 정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자관의 접근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미래의 장서개발향을 도모하고, 이용자에게 소요시간 및 경비 등을 분명하게 주지시켜 줌으로써 '접근' 방법을 일종의 명확한 자료입수 방법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도서관 예산삭감이라는 난제를 극복하고 자원공유의 효율성까지 기대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서관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달이 '접근' 패러다임에서의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게 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이 출현하면서 이용자들은 앉은자리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서지정보뿐만 아니라, 전문(full-text)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호대차는 기존의 '서지데이터에 대한 접근'에서 '즉각적인 전문의 소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확장된 의미의 접근은 구입해서 소장하는 것

〈표 1〉 적황성 대 적시성

적 황 성	적 시 성
물리적 자료의 소장을 기반으로 함	접근을 기반으로 함
지역적으로 축적하여 물리적으로 브라우즈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인쇄물 장서를 이용하는 것을 강조	전자적으로 네트워크화되고 전자적으로 브라우즈할 수 있는 자료에의 접근을 강조
장서의 규모의 가치	정보의 이용가능성과 전달가능성의 가치
보존장서를 형성하는 자원을 물리적으로 수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장서개발에 접근	도큐먼트 전달을 촉진하는 면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 장서개발에 접근

보다 더 나은 장서개발 방법으로 선호하게 만들었다. 즉, 도서관 장서개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이용자 요구를 예측하여 전통적인 매체로 된 대규모 장서를 구축하는 '적황론(just-in-case)'에서 이용자 요구가 분명히 나타나는 시점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적시론(just-in-time)'으로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소장 대 접근이라는 개념을 장서개발의 측면에서 적시성과 적황성에서 요약해보면 〈표 1〉과 같다.

이것은 장서개발시 예산의 사용 측면에서 볼 때, 미래에 필요할 것이라고 막연히 예측한 자료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자해야 했던 것에 반해서, 분명한 이용자 요구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사용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이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다. Marshall McLuhan은 "축적하는 것은 동시에 '접근'을 촉진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접근의 효율성은 소장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필요할 때에만 자료를 구입한다는 것은 장서개발을 위한 경제적인 시도에서 비롯된다. '적시에(just-in-time)'는 실물장서에 직접 접근할 수 있을 때만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

에 이러한 적시론적 장서개발 정책은 '어떤 시점에서 유용하게 available-at-some-time'라는 것으로 불리어져야 할 것이다. 적황성에서 적시성으로 변화에서 도서관 예산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Frederick C. Lynden은 다음과 같이 열 가지 요소를 들고 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 모기관으로부터의 재원감소, 구입할 자료범위의 증가, 새로운 자료를 위해 필요한 장비, 전자장비, 다양한 기술을 다루는 숙련된 직원, 직원감축, 부적절하고 넓은 도서관건물, 노후장서와 보존 및 유지의 필요성, 직원의 교육과 훈련 등이다. 즉, 이는 실물장서를 축적할 공간문제, 구입비용과 관련된 재정문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다. 결국, 바람직한 장서개발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대체하려는 적시론적 장서개발 정책은 위험스러운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전자매체에 대한 접근비용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며, 실물장서의 소장을 중심으로 하면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비용효율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용하게 장서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절대적으로 한쪽으로부터 치우친 도서관의 장서관리정책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접근 대 소장'에 대한 초기논의는 유용성이 부족하고 곤란한 문제점들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비판의 여지가 생기고 있다. 이제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이분법을 극복하고 실제로 네트워화된 자원을 포함하는 장서와의 연결을 구축하기 시작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형식이 아닌 정보의 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을 제안하는 본 논문에서는 소장을 대체할 수 있는 접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Genevieve Owens이 주장하는 '핵심장서'와 핵심사이트에 대한 '핵심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식론적 철학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2.2.2 인쇄매체와 전자매체 : 이원적 시스템

인쇄매체 대 전자매체라는 이원적 시스템이라는 타이틀은 학술 커뮤니케이션 현황과 도서관에서의 그 위상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켜 왔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대규모 변형을 가져오는 기술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술적 관심만이 주 관심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도서관에는 방대한 양의 인쇄자료 장서가 있다. 최근 인쇄매체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전자매체로 전환하는 소요되는 재정이 충분하게 지원되지 못할 것이고 그러한 전환비용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런 제한성 때문에 인쇄자료들은 그대로 장서로서 유지될 것이며, 그것에 대한 접근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인쇄자료의 내용이 그 기관의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내용(content)'이다. 만약 도

서관이 목록을 바꾸고, 2차검색도구를 없애서 인쇄자료에 대한 접근을 감소시킨다면, 이러한 자료들의 내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점차 이용이 감소될 것이다. 이렇듯 특정자료가 덜 접근되도록 만드는 도서관은 그 자료에 대한 요구가 어떠한 형태로도 없다고 확신하는 경우인 것이다. 그 도서관에 의해 제공되는 접근이 유일한 접근방법은 아니라는 것 역시 지적되어야만 할 것이다. 학술메커니즘의 기본은 인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인용이라는 것은 사실상 내용 자체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접근방식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학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생산물에 대해 정말로 지적인 접근을 제공한다면, 정보자체를 제공하는 비용을 고려하게 된다. 종이에 인쇄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선정, 수서, 목록, 배가유지, 대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평가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다. 이용자에게 인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비용이 경제적인가 하는 것은 또한 장담할 수 없다. 네트워화된 정보의 기반구조는 아직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다. 향후 몇 년간 정보전달을 위한 기술적 메커니즘을 누가 통제하고, 어떻게 그 메커니즘의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것인지 확실치가 않다. 또한, 전자저널과 같은 수많은 공식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이 아직은 실험단계에 있다. 편집과정을 포함한 많은 생산비용에 대한 보조금이 현재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Walt Crawford 와 Michael Gorman은 로스앤젤리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전자매체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비용에 대

한 하나의 가정을 제시한 바 있는데, 최소한 당분간은 많은 이용자가 인쇄자료로 정보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Michael Buckland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인쇄장서로만 혹은 종이로 사라져버린 도서관의 ‘전자자료로만’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펴는 것은 어리석다. 자주 이용해도 사라져 버리지 않는 비휘발성 종이로 된 인쇄자료와 유용한 자료만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자자원 사이의 균형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지적에 모든 사서들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며, ‘덜 휘발적 자료’와 ‘전자문헌’에 대해 그가 언급한 바와 같이 두 매체간의 중요한 특성을 규명하고 있다. 특정정보가 한 종류의 매체로만 존재하는지를 의미하는 유용성과는 별개로,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이 있다. 「Wired magazine」의 창간자이자 편집자인 Louis Rosetto처럼 전자매체에 심취한 사람조차도, 내용상의 차이에 따라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종이는 완전하게 임의검색(random-access)이다. 종이를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휴대하기 간편하고, 앞뒤로 넘기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해준다. 종이는 지금까지 고도의 사고내용을 전달하는 최상의 방법이다.”라는 그의 말은 이용자가 원하는 내용에 따라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의 선택이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기술과 인간본위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어떤 종류의 내용은 인쇄형태로 향하는 것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읽기’와 내용

의 기본적인 특성이라는 현상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사서들의 의무이다. 결국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자매체를 통한 정보만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내용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양 매체간의 선택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사서의 역할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상기의 이러한 논리적 관점에서 이원적 시스템을 도서관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초기단계에서는 모든 정보생산물의 경제성, 정보이용의 특성을 포함하여 도서관 외적요소들의 변화는 기술적 환경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천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쇄매체의 읽기 시대에는 전자저널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전자저널의 보급이 확대될 기술적 가능성이 확실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저널의 수가 적었던 것은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요소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연구자들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한 내용을 출판하고자 할뿐만 아니라, 신중히 검토된 자료를 읽고 싶어한다. 그러한 우수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필터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적합한 내용을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도서관은 더이상 단순한 물리적 가공물의 보관소가 아니고, 그것은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세계로 인도하는 게이트웨이인 것이다. 게이트웨이로서 도서관 개념은 접근이나 소유냐 하는 논쟁을 넘어서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 구분은 무의미하며, 중요한 것은 사서들이 이용자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커뮤니

〈표 2〉 인쇄매체와 전자매체의 비교

적 황 성	인쇄매체에의 접근	전자매체에의 접근
비 용	선정, 수서, 편목, 배가유지 등 인쇄매체로 제공하는데 고비용	초기 네트워크 기반을 위한 시설장비가 고비용인 반면 제공자체에는 상대적으로 저렴
접 근 성	임의검색(random access) 앞뒤로 이동하면서 원하는 부분만 쉽게 골라서 접근하기 용이	수많은 하이퍼링크로 원하는 지점만 접근하여 읽기가 어려움
안 정 성	비휘발성	휘발성
휴 대 성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고 다니면서 접근하기에 용이	네트워크 장비가 갖추어진 장소에서만 접근 가능, 휴대성이 떨어짐
친 화 성	인간본위의 오래도록 익숙한 인간의 전통적인 친화성이 높음	기술기반의 기계중심으로 인간친화성이 떨어짐
가용공간	인쇄매체를 소장하기 위한 배가공간이 많이 요구됨	공간요구 무관

케이션 시스템을 아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사서의 역할을 재정의하게 한다. 이러한 이원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비교해보면 〈표 2〉와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자원을 접근하는 경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곳에 있는 정보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자관에서 소장할 필요가 없다. 둘째,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있는 곳이면 어느 장소에서든지 혹은, 그 출처가 어디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그 정보를 인쇄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신만의 복제본도 가질 수 있다. 셋째, 모든 형태의 자료를 한곳에 리스트해두고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해놓은 경우에, 이용자가 각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모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넷째, 기존의 텍스트나 시청각 자료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던 멀티미디어 버전을 다운 받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전자정보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원격정보지만 자신의

서가에 있는 자료처럼 필요한 순간에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여섯째, 급진전하는 컴퓨터와 편집기능을 활용하여, 접근 통해서 자신의 컴퓨터에 FTP로 데이터를 쉽게 수정하거나 다른 데이터와 합칠 수 있다. 일곱째, 미래에 필요할 자료를 예측하여 구입하는 자료량은 점차 줄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순간 접근하는 자료에 대한 지원은 증대시킴으로서 이용자 중심의 장서관리가 가능하다. 여덟 번째, 컴퓨터를 이용할 때마다 생기는 트랜잭션 데이터는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식별해 내는 자료가 되어 장서관리에 도움을 준다. 아홉번째, 도서관간 혹은 벤더간에 긴밀한 협력이 촉진된다. 열 번째, 이용자와 제공자간의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원격접근 혹은 전자매체의 이용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원공유시스템(resource sharing system)'이 근본 대안이 될 것이다. 자원공유는 대부분 두 가지 기본 유형으로 구

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양한 이용자 집단에 대하여 장서의 일부가 가지고 있는 우연적 가치에 의존하는 고객 중심적인 자원공유이다. 두 번째 유형은 대규모 연구도서관들에 의해 실시되어 온 장서 중심적인 자원공유로 생각할 수 있다. 자원공유라는 개념에는 도서관 상호대출, 협동장서 개발, 장서보존계획, 협동적인 축적프로그램이 포함되며, 광의로는 직원의 전문지식 공유, 시설의 공유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미래에는 소유보다는 접근을 우선 순위에 두게 될 것이므로 도서관간의 협력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자원공유는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장서개발에 있어서의 소장 대 접근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일단 자원공유가 이루어지면 보다 쉽게 핵심장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소장하지 않은 자료에 대한 적시적인 접근을 제공하고 주변적인 자료수집을 위한 협동장서 개발 협약을 성립할 수 있게 된다. 컴퓨터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은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자원공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자원공유를 통한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 타관의 자료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알게되어 도서관에서 자료를 선정하고 장서를 개발하는데 대단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미래의 장서개발방법 혹은 정보이용방법이 소유가 아닌 접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다. 원거리에 있는 전자정보원에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하는 경우의 장점도 이미 살펴보았지만, 네트워크상의 자료의 혼잡성이라든가, 비용의 불투명성, 이용자의 기술적 능력, 화일파손문제, 무료자원의 유

료화 문제, 벤더들의 이용자 직접 서비스 문제, 저작권 문제등 수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 철저한 자원공유 협력이 대전제로 할 때만이 그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2. 3 디지털자원과 전통적자료의 장서관리 차이점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자원중 특히 인터넷 정보자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넷상의 전체 정보자원의 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점과 인터넷 정보자원을 검색할 수 있는 서지통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상의 자원은 아직까지 불안정한 상태로 오늘 있던 자원이 내일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또한 부정확한 정보이거나, 추가자료의 갱신이 유지되지 않은 구자료인 상태이거나, 쓸모 없는 잡다한 정보인 경우가 허다하다. 반면, 누구나 넷상에 자료를 실을 수 있고 접근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민주적인 수단으로 볼 수도 있는 면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수많은 인터넷 자원이 보존문제가 확실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웹자원의 관리에 대해서 Thomas E. Nisonger(1977) 전통적 자료의 장서관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장서관리 측면에서 양측의 특성을 잘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인터넷자원의 선정기준이 될 수 있다.

(1) 인터넷 정보자원은 전통적인 장서관리와는 달리 자료수집보다는 선정의 개념을 가

지고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중대한 차이점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자료가 도서관에서 소장과 보관을 목적으로 수집되는 반면에, 인터넷 자원은 자원에 접근할 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성의 예외로, 소프트웨어나 넷상에서의 전자저널은 기본적으로는 접근이 목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으로 획득되어지기도 한다.

(2) 전통적인 자료의 보관을 위한 공간문제와 비용제한은 인터넷자원을 관리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터넷 정보자원은 도서관의 자료보관용 공간 같은 설비가 필요하지 않다. 대신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하여 커넥션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있다. 하지만 일단 인터넷에 연결되어 구축되고 나면, 대부분의 인터넷 정보자원에 곧바로 무료 접근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예외로는 도서와 정기간행물 같은 전통적인 자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 「Encyclopedia Britannica」같은 인터넷자원은 무료로 야한 경우도 있다. 인터넷 자원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무료로 접근될 수 있을지는 중요한 문제이며 아직은 불확실한 사안이다.

(3) 인터넷은 과거에 도서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수집되지 않았던 자원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인쇄되기 전에 내용을 볼 수 있는 프리프린트(preprints)가 그것이다. 1995년 6월,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Paul Ginsparg가 설립한 「Physics Service」, 그리고 University of Chiba's Philosophy Department가 관리하는 「International Philosophical Preprint Exchange」등 유명한 70여개에 달하는 프리프린

트 서버를 인터넷상에서 이용할 수 있다.

(4) 전통적인 자료선정 결정이 미시적인 반면, 인터넷 선정결정은 종종 거시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거시적인 선정은 단 한번의 결정으로 자원의 전체를 '총괄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시적인 선정은 서명별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웹 사이트상의 모든 자원은 한번에 총괄적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고퍼사이트나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 같은 것은 거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경우의 예외도 있다. 즉, 특정출판사의 모든 발행물에 대한 전통적인 일괄 주문은 오히려 거시적 선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인터넷상에서 전자저널을 선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미시적인 경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5) 전통적인 장서관리중 자료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본문제가 인터넷상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웹 사이트 상에서 중복선택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고퍼와 웹사이트들은 같은 원자료에 대해 링크를 하여 중복선택을 발생시키고 있다. 어떤 도서관의 고퍼나 웹페이지에 링크된 다른 고퍼나 웹사이트를 계속해서 선택할 때, 많은 동일한 원자원들은 복제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자원이 아직은 대부분 무료로 검색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6) 필요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정보자원이 선택되기도 한다. 많은 인터넷자원 선정이 거시적 수준으로 '취사선택' 하기 때문에, 어떤 웹페이지로의 링크가 사이트상의 모든 자원에 연결되었을 때 수많은 불필요한 자원이 포함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인터넷 자원이 무료로 접근될 수 있는 한은 마

찬가지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존의 도서관에서 수집하지 않았던 오락용 자원이 선정된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7) 전통적인 자원이 고정적인 반면에, 인터넷 자원은 역동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급속하게 변한다는 사실은 넷자원의 불안정한 상태를 말해준다. 인터넷의 특성을 규명하는 용어로 '휘발성'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연속간행물같은 전통적인 자원은, 매호마다 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일단 선택 후에는 고정된 형태를 유지한다.

(8) 전통적 자료와 인터넷 자원은 서로 다른 장서유지를 요구한다. 장서유지란 자료를 입수한 뒤에 그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제본, 제작, 원격지 소장규정, 복본조사, 그리고 결호대치 등의 장서유지가 필요하다. 이에 반하여 인터넷정보자원은 급속히 변하는 특성 때문에, 고퍼와 웹 페이지는 외부 링크를 보완하기 위해서 웹 페이지의 접속 주소의 변경여부, 취소되었는지, 혹은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미시간 대학도서관 고퍼에 링크해 놓은 것들은 최소한 격주로 한번씩 검토해야 한다.

(9) 대부분의 전통적인 자료의 선정 및 미시 평가의 기준은 인터넷 자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외에 적절한 추가 기준이 있다면 특정 기준은 상대적으로 중요해지고 다양해질 것이다.

(10) 전통적인 자료는 인터넷 자원보다 직

접적인 검토 없이 선정된다. 대부분의 도서들은 직접 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정되나, 인터넷의 정보자료는 링크 전에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어프루벌플랜을 수립하는 이유는 자료 선정결정을 하기 전에 견본도서제도를 통해서 직접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이다.

(11) 인터넷 자원은 동시에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전통적인 자원들은 한번에 한 명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외로는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인터넷 자원이 동시 사용자들의 수를 제한하는 반면에, 전통적인 시청각자료들은 오히려 한 사람 이상의 이용자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기도 하다.

(12) 도서관은 전통적 자원보다는 인터넷 정보자원을 더 제작, 발행한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의 웹 홈페이지는 도서관 자체제작물이나 발행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도서관이 전통적 자원을 발행하게 되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가 될 것이다.

(13) 인터넷 정보자원은 전통적인 자료에 대한 서지통정과 같은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통적 장서관리는 도서나 연속간행물 서명과 같은 뚜렷한 서지사항으로 관리되어 왔다. 반면에 인터넷 정보자원은 서지사항이 아니라 사이트나 파일, 메뉴 혹은 링크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14) 접근단계가 전통적 자료선정에서보다 인터넷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전통적인 자료의 선정은 선정할 것이냐, 아니면 선정하지 않을 것이냐 두 가지 결정만이 있으나, 인터넷 정보자원의 장서관리는 선정뿐만 아니

라 적절한 접근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코넬대학교의 Mann 도서관에서 선정가는 새로운 전자자원을 위해 다섯 개의 '접근단계' 중 하나를 지정해야 한다. 1에서 3단계는 Mann 도서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대학캠퍼스 네트워크를 거쳐 느린 속도로 ('순간적이고' '느리고' 그리고 '계속 이용할 수 없는') 이용할 수 있다. 5단계의 자원은 도서관에서 스탠드 얼론 워크스테이션으로 이용되는 반면, 4단계의 자원은 도서관에서 로컬 네트워크로 이용할 수 있다. 상위 단계일수록 보다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고퍼와 웹사이트들은 여러 단계의 접속을 거치는 계층구조를 갖는다. 인터넷 자원에 대한 장서관리는 자원들의 전반적인 중요성과 중요성평가를 고려하여 적절한 접근수준을 제공해야 한다.

(15) 전통적 자료와는 달리, 인터넷 자원에서는 많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아카이빙(archiving)과 자료보존의 문제가 있다. 도서관들은 전통적인 인쇄자료를 제본하고 보존하는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터넷 정보자원을 보존하는 확실한 기법이나 체계는 없다. 전자저널같은 인터넷 자원은 다운로드 받고 보존할 수 있기도 하지만, 도서관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만한 것은 못되며, 인터넷 발행자들이 그들 자원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의존할만한 방법은 못된다. 현재 인터넷 정보자원의 아카이브와 보존에 관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즉, 인터넷 정보자원 보존의 책임주체가 정보생성자, 도서관, 컨소시엄, 국가, 지역 단체들중 누가 맡을 것인지의 문제부터, 보존대상이 될

자원, 기간, 방법 등의 결정문제 등이 있다. 그리고 보존되지 않는 인터넷 자원들은 점차 학문적 기록으로부터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 2. 4 인쇄매체와 전자매체의 최적의 결합 : 상보성원리

도서관이 인쇄매체와 전자매체라는 이원시스템의 양 매체사이에 대한 중재역할은 양자를 가장 적절하게 결합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도서관과 사서의 해석이 도서관 중재기능의 핵심이라고 본다면, 매체는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최우선의 요건은 아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결정은 정보의 이용 집단의 요구에 기반 해야만 한다. 패키지나 매체를 살펴본 후 이용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로 되는 그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도서관에서의 성공이란 양적으로가 아니라 이용자요구에 대한 적합한 내용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어떤 커뮤니케이션은 특정 매체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도서형태로만 얻을 수 있거나, 인쇄자료에서 학술논문을 얻을 수 있거나, 혹은 웹상에서만 구할 수 있는 최신 정보가 있다. 내용의 정보원을 파악하고, 그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정보원을 이용하는 것은 사서의 의무이다. 그때 매체는 아주 무관한 게 아니라, 사서들이 매체와 내용을 통합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인쇄 및 전자형태의 결합은 도서관계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실제로 매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정 내용은 인쇄형태로나 전

자적 방법에 의해서 유용하게 될 것이다. 매체의 혼합문제나, 매체에 대한 최소한의 선정은 중요한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사서가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은 그것이 기록되는 내용의 특성과 이용목적에 적합해야 하는 것이다. 도서관 이용자가 문학적 연구작업에 필요한 간단한 내용을 원할 수도 있다. 이용자에게 이 내용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특정 내용을 미리 올려놓은 네트워크 자원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개인이 생각하며, 읽으면서, 노트도 해가면서, 다른 내용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용자를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나 계속 읽으면서 수정할 수 있는 물리적인 형태의 내용이 더 효과적인 것이다. 즉, 모든 이용과 이용자에게 적합할만한 보편 타당한 정답이란 없는 것이다. 도서관의 책임은 내용물의 필요 및 목적, 내용자체, 내용이 전달되는 매체 등의 모든 이용측면을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 형태로 맞추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용해온 용어로는 도서관 목적의 근본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분명해 진다. 이용자의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접근' 혹은 '검색'에 대해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인쇄 및 전자매체의 최적의 결합이라는 개념은 모든 이용자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단 하나의 매체는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이러한 개념이 암시하는 것은 가능한 것과 요구하는 것을 구분 짓는 중요성이다. 얼마든지 전자적으로 정보를 저장

하고 검색할 수는 있으나, 저장과 검색비용은 다른 방법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하급한 처리과정과 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종이에 인쇄된 것이건, 보다 향상된 기능의 매체에 수록된 것이건, 특정한 매체가 가장 효과적인 내용의 이용을 가져다준다고 규정할 필요는 없다.

Crawford와 Gorman이 말한 바처럼, 도서관에서 인쇄 및 전자매체의 결합은 발전된 기술의 응용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발전된 기술의 이용이란 첫째, 새로운 기술의 응용을 추구하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고, 둘째, 비용효과성, 가격 대 이익, 그리고 무엇보다도 혁신된 서비스에 관한 영향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셋째로, 프로그램, 서비스 혹은 이미 자동화된 것보다는 현재 자동화가 되어지고 있는 업무흐름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산업혁명 당시 기계주의 신봉자들의 러다이트(Luddite)식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강조된다. 즉 도서관들이 기술적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주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인식은 이용자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내용의 특성에 대해서 폐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매체에 대한 개방성과 요구에 대한 개방성을 결합하는 것은 내용과 그 내용을 원하는 이용자가 정확히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표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기술이나 매체를 둘러싸고 있는 논의에서, 어떤 정보나 내용이 가장 잘 저장되고 전자적으로 잘 전달되는가, 그리고 다른 매체에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다 숙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인쇄매체와 전자매

체와의 관계는 전환(conversion)이나 대체(replacement)의 문제가 아니라 추가(addition)와 보강(reinforcement)의 문제라는 Crawford와 Gorman의 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이는 인쇄매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기존의 학술 커뮤니케이션 체계에 전자매체가 추가되고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보강이 의미하는 것은 인쇄매체에 대한 장서관리 및 전문 제공 및 전자자원에 대한 내용관리에 있어서 이용자 요구에 맞는 목적 하에 서로 보완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결코 기존 인쇄매체에 대한 전통적 장서관리가 전적으로 필요 없어지거나, 전자매체의 장서관리만이 중요하다거나 하는 식의 논리는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매체의 다양화와 변화에 따라서 장서관리가 이용자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내용관리라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3. 장서관리에서 내용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

본 장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장서관리와 내용관리로의 중재역할론 그리고 지식관리시스템으로의 장서관리에 대한 논리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3. 1 이용자 중심의 장서관리

이러한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공물

에 대한 정보 이용자 중심의 장서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정보의 생산물 즉, 광의의 가공물은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체계의 기능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생산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떤 학문에서 나온 학술 커뮤니케이션은 이용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도서관은 정보, 즉 학술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생산물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요구의 변화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민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 각 학문별로 상이한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으로 상이한 매체로 출판된 가공물에 대해서 도서관은 과연 어떠한 임무를 가지로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도서관과 사서는 다양한 이용자의 전공배경과 이용요구의 변화와 특성을 이해하고 적합한 자료 제공을 서비스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학문활동을 하는 지식 창출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용자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일부를 이루는 가공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이용자 중심이 되는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학술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데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하나는 상대적 입장이다. 즉, 조건, 연봉이나 명예 같은 요소들에 의한 동기유발이다. 또 다른 하나는 현실적 입장이다. 즉, 학자들이 연구와 연구결과에 대한 공식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들의 지식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의 연속선상에서 현실주의적 목적을 향하여 가장 적합한 입장을 취해야만 한다. 그러한 입장을 취할 때 학술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대한 이용자중심 접근방법은 도서관과 사서들이 학자들과 연구자들의 지식 성장의 욕구라는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 다음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지식창출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도서관의 성공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이와함께 사서들은 그들의 활동이 단순히 사회적이거나 조직적 기능이 아니라, 인식기능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그러한 인식 없이 내용관리의 역할을 거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즉 사서의 인식 기능은 내용의 해석하는 능력이 핵심이 되는 것으로 지식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가공물들을 체계적인 도구로 해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야말로 내용관리자로서의 미래사서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장서관리에 대한 이용자기반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용자 중심의 접근방법은 도서관이 그 지역사회에 대해서 무엇을 제공해 주어야만 하는가를 정의하는 일이다. 우리는 도서관이 단순한 가공물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취해왔고, 아직까지 그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공물이 정보의 생산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서나 CD-ROM 같은 상품자체가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며, 이용자는 정보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지, 매체나 정보의 패키지를 중요히 여기지 않는다.

사서들은 과거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서관의 핵심목표를 충족시키는데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생산물이 어떤 특별한 장소와 시간에 필요하게 될 내용으로서보다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거나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써 정의되어 왔다는 사실은 도서관의 목적을 개정할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며, 정보기반을 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역학관계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한다. 학술 커뮤니케이션시스템의 이용의 이면에는 지식 성장에 대한 갈망이라는 요소가 있다. 이러한 요소는 우리가 '정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유용한 데이터 더미보다 훨씬 많은 것을 내포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그러한 장서와 그 데이터의 해석 두 가지가 의미 있고 정보를 주는 표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를 주는 표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수동적으로 가공물들을 수서 해서는 이용자중심이라는 목표를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것이 의미 있는 것을 얻는데에 오히려 방해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Warren Weaver는 오래 전에 이미 데이터의 양과 의미에 관한 패러독스를 인식하였다. Weaver는 '정보'라는 단어를 매우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즉, 그것은 특정한 메시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존재하는 선택의 자유의지를 나타낸다. 이용자는 다양하고 수많은 도서관 장서에서 수많은 정보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엄청난 선택의 기로에서 보다 어려운 것은 이용자로 하여금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적합한 자료를 확인하

여 선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만약에 사서의 역할이 소극적이면, 의미를 찾는 이용자에게는 불편한 일이 될 것일 반면에, 의미와 정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서가 적극적으로 응한다면, 성공적일 확률이 높다. 그러나 사서의 적극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문제는 단순히 방대한 데이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에 있는 것이다. 해석은 인식과 동의어가 아니며, 필요한 자료를 선별할 수 있는 읽기 능력을 키움으로써 해석은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3. 2 내용관리로의 중재역할론

물리적 대상, 배가와 저장 그리고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장서를 관리하는 것에서, 내용을 관리하는 것으로의 변화는 개념상, 실무상 쉬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개념(ideas)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물(things)을 관리하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오래도록 도서관은 '내용(content)'을 가지고 있는 '패키지(package)'로써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도서관의 책임은 그 내용이 보존되어야 할만한 가공물들을 보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었다. 이러한 개념은 Walter M. Miller의 소설인 *A Canticle for Liebowitz*에서 보다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의미한 물리적 가공물을 보관하는 것으로는 독자에게 더 이상 '정보를 주는' 방법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사서들이 내용을 완전히 무시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서들이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접근체계를 만들

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서관리 영역에서 자료를 선정하는 것은 내용과 그것을 이용자집단에게 연결시켜주는 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성에서의 미비함을 지적하고자 함이 아니라, 개념적인 것보다 물리적인 것에 대해 우위를 두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Katina Strauch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이용자 기반에 우선하는 자료를 수집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을 이용자로 하여금 로컬에서 쉽고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임무가 있다."고 하였다. 단지 정보의 이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견해를 나타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술 커뮤니케이션 이용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새로운 개념의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즉, 이제 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공물의 보존이나, 전자 정보 중심의 기술적 접근이라는 개념만으로는 이용자 기반의 내용제공을 충분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의 새로운 장서관리의 개념이 요구되는 것이다.

매체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매체가 곧 메시지이다'라는 맥루한식으로 치중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미디어가 메시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즉, 도서관은 전자정보가 받아들여지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내용의 핵심이 물리적인 것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것은 물리적인 것이 내용과 그것의 수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과거 오랜동안 매체는 생산자가 선택해왔다. 작가는 전통적으로 도서를 매체로 선택해왔고, 예술가는 회화나 조각을 선택해 왔다. 현재에는 인

쇄시대동안 기록된 수많은 텍스트들이 전자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매체의 변화는 내용이 전달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재, 어떤 정보이용자들은 선형으로 단어가 나열된 문장으로 인쇄된 텍스트를 선호하기도 하지만, 혹자는 하이퍼텍스트 표현을 선호하기도 한다. 매체 자체와 그 수명에 관한 연구에 앞서서 이용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서관 및 사서의 책임에 관한 연구가 더 현안문제가 될 것이다.

어떻게 도서관이 중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서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사서의 지위가 관리자라는 생각은 적합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라이브러리언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관리측면은 물리적인 정보물, 정보가 소장되는 건물, 그것들을 둘러보는 사람, 자료를 얻기 위한 자원, 정보에 접근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술, 그리고 다소 극단적으로 본다면 그것들을 대치하기 위한 기술 등이었다. 이러한 기존의 관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개념에서의 관리란 정보 생산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이해하고, 정보탐색자의 요구와 바람을 예측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만들려고 했는지의 기본에 대한 정보생산자와 정보탐색자의 두 가지를 결합시키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는 지적인 활동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관리에서 보면, 이전의 관리에 대한 것은 무시되지 않지만, 그것들은 모두 내용에서 재고된다. 재정, 공간, 물리적 시설, 그리고 사람은 모두가 아직까지 도서관 운영체에 대해서 필수적인 것이고, 사실상 이러한 체계에서 인적요소는

더욱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장서관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광의의 개념인 '내용관리' 중심으로 변모하기 위한 과정에서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중재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을 재정립하는 일이다. 그 첫 번째 용어는 '정보'이다. 그 용어는 최근에 모든 학술연구 생산물뿐만 아니라, 사서와 도서관에 관련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연구와 학문에 관련된 성장이기 때문에, 수년간 저자들은 '지식'이 '정보'를 대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문제가 있다. 연구자나 학자들이 문제제기를 통해서 그의 지식을 성장시켰을 때, 반드시 독자가 풍요로워진다는 보장은 없다. 지식의 성장은 우선은 개인적 현상이지만, 일단 개인적 지식이 성장하면 그것은 사회적 현상이 된다. 사서들은 확실하게 인식론적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강압이나 권고, 혹은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지식을 강제로 부과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식 기반 하에 풍요로워지도록 하는 것이다. 사서가 할 수 있는 기능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중개인 것이다.

이러한 상호관계 하에 사서는 이용자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받는 입장에서 도서관의 내용을 기반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검색이 어려워지는 것은 이용자들이 제각기 개인적 입장에서 내용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무나 복잡해서 적합성 자체의 개념을 흔들어 놓는다. 우리는 적합성이 특별한 내용의 이용자나 독자의 객

관적 판단에 의해서 단독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료의 적합성을 결정하는데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Carol L. Barry는 기타 다른 요소들로서 이용자 자신의 경험과 믿음, 문헌의 출처, 물리적 실체로서 문헌 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은 사서들이 적합성에 관한 이용자의 직관을 평가하고, 최소한 방향제시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Dan Sperber와 Deirdre Wilson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적합성에 대한 인식론적 측면을 조사함에 있어, 적합성에 대한 직관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직관이 문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문맥(context)'은 고려중인 내용과 개인의 신념이나, 가정, 지식수준 같은 사적인 부분이다. '내용(content)'은 개인에게 어떤 문맥적인 효과를 미치거나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신념이나 가정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기존의 문맥을 보강할 수도 있지만, 효과를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문맥적 효과는 마찬가지로, 인식론적이고 개념적이다. 즉, 그것은 사고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혹은 개념적 표현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구별은 포착하기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고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문맥과 내용과의 인식을 사서들이 잘 이해하고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중재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사서의 전략이 마련되어만 한다. Thomas Froehlich는 내용이 해석을 위한 핵심이고, 해석은 적합성 결정에 대한 통합이므로, 내용은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필수적인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사실, 중재의 수단은 해석이다. Froehlich는 "해석학은 모델링 시스템과 이용자 기준을 위한 기본골격을 제공할 수 있고, 해석은 이용자가 정보를 요구하는 문맥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의 텍스트(text)를 문맥(context)으로 옮기는 활동이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해석과 문맥 사이의 연관성 때문에 Sperber와 Wilson에 의해서 진전된 개념과 더불어 맞물려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해석의 본질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재 과정에 대한 해석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몇 가지 언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해석을 정의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다. Richard Palmer는 해석에 대해서 "명백한 내용과 의미로부터 잠재하거나 숨겨진 의미로 암호를 풀어내는 과정이다. 보다 큰 중요성은 명백한 내용 하에 규명되는 시스템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중재를 하기 위해서 해석학적 과정은 단지 정의된 것으로써의 해석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것은 의도성을 갖고 있는 원칙에 의존한다. 의도성은 인식자인 '나'와 인식되어질 객체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용자와 도서관 사이에서 상호교환이 실패하는 것은 보편성이 결여되기 때문이다. 즉, 도서관 창조자이자 지적, 물리적 접근을 체계화하는 사람인 '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다른 사람'인 이용자의 입장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검색, 확인, 선정, 그리고 우선 순위의 문제는 도서관 내용관리자들의 업무가 될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Clifford Lynch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단순하게 있고, 네트워크상에서는 훨씬 더 많아진다. 전체

적으로 너무 많은 정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상에서 적합한 정보를 찾고자 하는 이용자는 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서 단순히 어떤 것이 적합정보가 될지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질적 순위와 적합한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들은 넷상에서 정보를 조직하고, 선정하고, 문맥제공을 위해서 내용관리자들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 때문에, 도서관 중재는 보다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네트워크화된 21세기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용관리자들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관리자들은 평가, 선정, 및 개념이나 데이터, 그리고 그래픽 이미지들 같은 내용의 우선 순위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둘째, 그들은 발견된 내용을 보유하고 '합리적인 게이트웨이'로서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이용자들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일한 목적에 대한 다양한 자료형태"에 직면하게 될 때, 내용관리자들은 인쇄자료이건, 전자자료이건, 멀티미디어나 결합형태이건 간에 적합한 자료형태를 선정하여야 한다. 넷째, 내용의 문맥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 질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용자가 찾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을 찾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필수적인 '메타데이터'를 내용관리자가 추가하는 것은 중재를 위해 필수적인 임무이다. 다섯 번째, 네트워크 환경에서 협력과 비용절감 목적을 위한 자원공유 및 내용제공시스템을 조직해야 한다. 여섯 번째,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법의 법적 효력이 충분치 못하지만, 학술집단의 권익 수호라는 영역에서 보호해야 한다. 일곱 번째, 출

판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게이트웨이로서 도서관이 봉사하는 한, 내용관리자는 저자와 독자들 사이에서 중재를 지속해야 한다. 정보의 전자형태에 관한 논의나, 이용자로 하여금 특별한 학문을 위한 적합한 형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서로 다른 논의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기 위한 것이 내용전문가의 역할이다. 학문들이 학술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제 전문가 및 서지전문가 두 가지 역할을 병행하기 위해, 사서들에게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21세기를 향해 내용관리자들이 필수적인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 3 지식관리시스템으로서의 장서관리

미래에는 인쇄자료와 전자자료가 혼합된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내용관리자의 정확한 역할은 도서관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문적 논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과학을 예를 들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Research Libraries Project(AAURLP)에 의해서 최근에 제안되었던 것처럼, 내용관리자로서 사서들은 전반적인 협력활동으로 통합될 것이다. 즉, 도래하는 모델은 지식관리시스템으로써 각 학문 집단을 검토하고, 그 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와 활동에 있어서 동반자로서 임하기 위해서 과학자, 정보기술자, 그리고 사서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과학에서 Human Genome Initiative 협력모델은 이러한 학술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일례가 될 수 있다. 사회과학과

인문학에서도 학자들이 도서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게 될 것이므로, 내용관리자들은 도서의 운명이 얼마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인쇄 자료의 수서, 저장, 그리고 검색을 위한 도서관 자원예산의 일부를 유지할 것이다. 사회과학과 인문학에서 내용관리자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점차 소급내용관리에 보다 더 치중하게 할 것이다. 즉, 선정기준과 선정전략을 개발하고, 전통적 기준을 전자형태로 옮기는 주요단위들을 전환하고 나서, 학자들에게 봉사해야만 하는 것이다.

미래의 도서관은 기존의 인쇄매체를 비롯하여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CMC) 과정에서의 이용자와 전자정보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보장해 나가야 한다. 즉, 도서관의 장서개발에 있어서 사서는 단순히 사회적, 조직적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적합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인식적 기능에 기반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의 핵심요소는 바로 도서관의 '해석'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도서관의 이러한 인식적 기능으로 이용자와 적합한 내용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검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지식성장이 라는 궁극적 목적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도서관의 고객인 '이용자'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원의 '내용'을 연결시켜 주는 '중재 역할'로서의 도서관 기능은 학문간의 특성과 영향을 고려하는 내용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미래의 지식관리시스템으로서의 도서관 기능으로 제고하게 될 것이다.

4. 결 론

장서관리에서 내용관리로의 개념적 변화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매체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왔던 장서 개발에 대해서 역할론적이고 개념적 측면에서 내용 자체에 초점을 두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둘째, 도서관과 사서의 해석은 도서관의 기능이 단순히 사회적, 조직적 기능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체계를 조직화하는 인식론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셋째, 내용은 해석을 위한 핵심이고, 해석은 적합성 결정에 필수요소이므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는 적합정보를 확인하는 것보다 질적 순위를 선정하는데 성공을 좌우한다. 넷째, 이용자 요구에 적합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매체의 선택보다도 중요하며, 적합한 내용과 이용자를 연결 시켜주는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섯째, 내용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내용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주요한 관건이 된다. 여섯째, 인쇄매체와 전자매체의 관계는 전환이나 대체가 아니라, 추가와 보완의 문제이다. 일곱째, 도서관은 인쇄매체와 전자매체라는 이원적 시스템 속에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양 매체간 결합을 통해서 균형의 중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덟째,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지식관리시스템으로 통합해나가는 방향을 제시한다.

참 고 문 헌

- 남태우, 디지털환경에 있어서 '소장 대 액세스'의 패러다임 연구. 국회도서관보 98.5-6, 3-50
- 윤희윤,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장서관리의 기본방향과 전략적 방안, 도서관 99, 여름, 3-39
- 송영희, 김영신, 노진영, 권은경, 이호숙, 『장서관리론』, 구미무역, 1999
- 류인석, 『자료개발정책론』, 한국도서관협회, 1998
- 임태삼, 『장서구성론』 학문사, 1997
- G. Edward Evans,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Collections", 3rd ed. Libraries Unlimited, INC. 1995
- Charles B. Osburn, "Collecti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in *Academic libraries: Research perspectives*, ed. Mary Jo Lynch and Arthur Young,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0, 1
- Bart Harloe and John M. Budd, "Collection Development and Scholarly Communication in the Era of Electronic Acces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0, May 1994, 83-87
- Joseph Branin, "Delivering on Promises: The Intersection Between Print and Electronic Systems in Librarie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Libraries* 10, December 1991, 322
- Patricia Battin, "Introduction," in *Campus Strategies for Libraries and Electronic Information*, ed. Caroline Arms, [Bedford, MA]: Digital Press, 1990, 3
- Anthony M. Cummings et al., "University Libraries and scholarly communication"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1992
- N. David Mermin, "Boojums all the way through: communicating Science in a Prosaic 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57-62
- Charles R. Martell, Jr., "The Client-Centered Academic Library: An Organizational Model"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83, 22-23
- Warren Weaver, "Recent Contributions to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in Claude E. Shannon and Warren Weaver,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3, c1949, 11

- Jay David Bolter, "Writing Space: The Computer, Hypertext, and the History of Writing"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1, 11
- George P. Landow, "Hypertext: The Convergence of Contemporary Critical Theory and technolog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58
- Edward W. Said, "Beginnings: Intention and Metho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5
- Sven Birkerts, "Gutenberg Elegies: The Fate of Reading in an Electronic Age" Boston: Faber and Faber, 1994, 75
- Richard E. Lanham, "The Electronic Word: Democracy, Technology, and the Ar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134
- Florence E. DeHart and Karen Matthews, "Subject Enhancement and OPACs: Planning Ahead," *Technical Services Quarterly* 7, no.4 1990, 35-52
- C. Blair and M. E. Maron, "An Evaluation of Retrieval Effectiveness for a Full-Text Document Retrieval System," *Communications of the ACM* 28, March 1985, 289-299
- Thomas Mann,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Quality at the Library of Congress" Opinion Paper No.5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1994, 4
- Bryce Allen, "Individual Differences, Values and Catalogs," *Technicalities* 11, July 1991, 6
- Katina Strauch, "Don't Get Mired in It: Make Some Brick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18, March 1992, 12-13
- Ross Atkinson, "The Citation as Intertext: Toward a Theory of the Selection proces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28, April-June 1984, 109-119
- Walt Crawford and Michael Gorman, "Future Libraries: Dreams, Madness, & Reality"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5, 143
- Michael Buckland, "Redesigning Library Services: A Manifesto",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2, 59
- Carol L. Barry, "User-Defined Relevance Criteria: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5, April 1994, 149-159
- Dan Sperber and Deirdre Wilson,

-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 Thomas J. Froehlich, "Relevance Reconsidered-Towards an Agenda for the 21st Century,"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5, April 1994, 130
- Richard Palmer, "Hermeneutics: Interpretation Theory in Schleiermacher, Dilthey, Heidegger, and Gadamer"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9, 43-44
- John M. budd, "An Epistemological Found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Quarterly* 65, July 1995, 312-313
- Nicholas Negroponte, "Being Digital", New York: Knopf, 1995, 13
- Clifford Stoll, "Silicon Snake Oil: Second Thoughts on the Information Highway" New York: Doubleday, 1995, 186
- Rose Atkinson, "Access, Ownership, and the Future of Collection Development," in *Collection Management and Development: Issues in an Electronic Era: Proceedings of the Advanced Collection Management and Development Institute*, ed. Peggy Johnson and Bonnie MacEwan,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4, 100
- Paul Metz, "The View from a University Library," *Change* 27, January/February 1995, 30